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시상식 열어

- 최우수상(수기 일반) 그들은 가치 있게 존재하길 원한다.’
- 최우수상(수기 종사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짜증은 없었다.’
- 최우수상(영상) ‘우리들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지난 11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2024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5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제도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 올해 공모전은 △수기(일반/종사자)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200여 작품이 접수되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적합성, 차별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1편을 포함한 총 20편의 수기 및 영상 작품을 선정했다.

○ 영상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청각장애인과 그 친구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다룬 ‘우리들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방법’이 선정되었다. 수기 일반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가 바라본 베트남 참전용사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들은 가치 있게 존재하길 원한다.’가 차지했으며, 수기

종사자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찾아온 한 가족의 긍정적인 삶의 마지막 준비 과정을 그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짜증은 없었다.’가 선정되었다.



▶ 지난 11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로 공개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올해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첫해로서, 제도 정착을 넘어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라며 “이러한 의미 있는 해에 열린 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들은 국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상식 축하에서 밝혔다.

□ 홍창권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애말기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 생명윤리정책원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의 마무리

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책 임 자	센 터 장	조정숙 (02-778-7505)
		담 당 자	선임팀장	문용준 (02-778-7001)
			홍보팀장	김미리 (02-737-8310)

□ 제도 개요

-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6.2월 제정, '18.2월 시행)
- (사업수행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
- (제도참여기관)
 -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455개소('24. 8월말)
 - * 자체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참여 위해 12개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744개소('24. 8월말)
 - *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주요 용어>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 + 환자 의사 확인(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 2인 진술) *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④가족 전원합의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통상 3~6개월)
- ☞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통상 2~3일)

참고2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운영 현황('24. 8월말)

□ 제도 참여기관

- (의료기관) 총 455개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5인 이내로 구성·설치되어 제도와 관련 심의, 상담, 교육 등 수행

종별	구분	대상기관 수	설치·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7	47	100.0
	종합병원	331	209	63.1
	병원	1,408	41	2.9
	요양병원	1,373	150	10.9
	합계	3,159	447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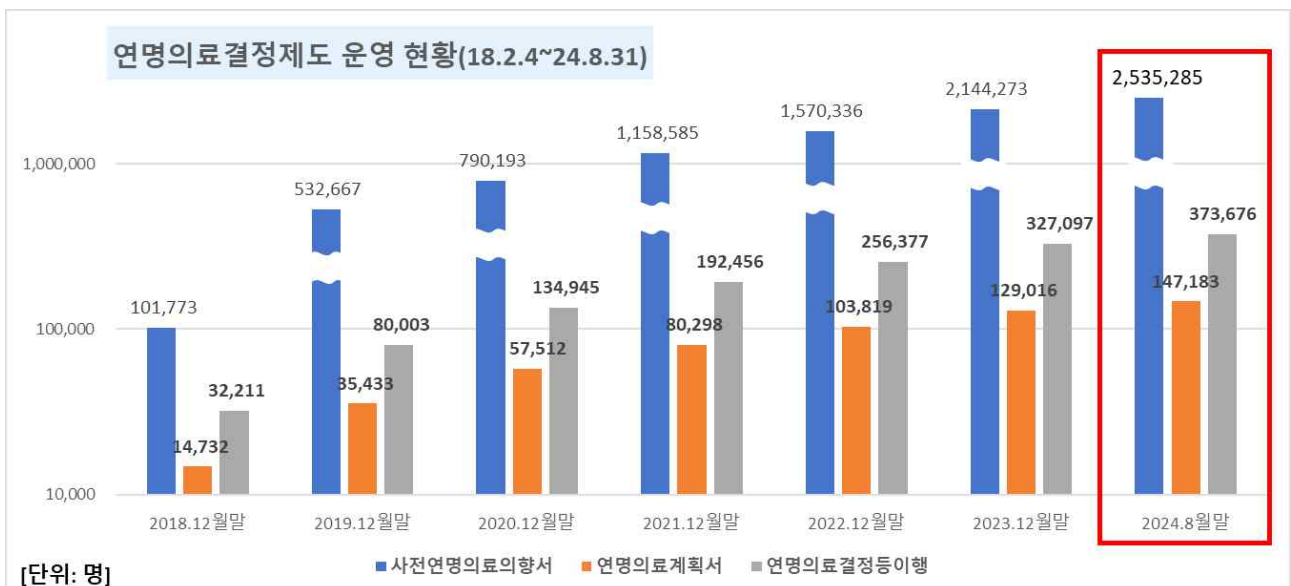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8개 기관 등록

- (등록기관) 총 744개소 지정

구분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계
기관수	169	200	34	2(239*)	100	505(744*)

* 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출장소 포함

□ 제도 운영 현황



참고3

2024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콘텐츠 공모전

□ 2024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요

- (공모명) 2024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콘텐츠 공모전
- (공모 부문 및 주제)

부 문		주 제
수기	관련 종사자	○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서식 작성 경험(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사례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경험
	일반	○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등과 관련한 경험
영상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본인 및 가족, 친지 등의 직·간접적 경험

- (공모 기간) 2024. 5. 30.(목) ~ 8. 7.(수)
- (접수 결과) 200명 (수기 부문 186명, 영상 부문 14명)
- (심사 기간) 2024. 8. 9.(금) ~ 8. 21.(수)
- (심사 결과) 총 20점 선정

구분	수기 부문(14명)		영상 부문 (6명)	훈격	상금
	일반	종사자			
최우수상 (3명)	박*미	박*남	김*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기) 100만원 (영상) 200만원
우수상 (6명)	박*희	김*정	김*민	국가생명윤리 정책위원장상	(수기) 50만원 (영상) 100만원
	이*원	김*원	황*민		
장려상 (11명)	서*정	이*은	최*민	국가생명윤리 정책위원장상	(수기) 30만원 (영상) 50만원
	김*경	김*혜	김*수		
	정*경	이*진	최*성		
	김*언	이*자			

- 결과발표: 2024. 8. 26.(월), 홈페이지 등 SNS 공지 및 개별 연락

참고4

최우수상 수상작 주요 내용 발췌

○ 수기(일반) 부문

- 최우수상 <그들은 가치 있게 존재하길 원한다.> (박영미 씨) 수기 중 일부

어느 때와 같이 사무실로 한 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신데 가정 호스피스를 받고 싶어서요.”

아들은 베트남 참전용사셨던 아버지의 평소 성품과 소신에 따라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음을 전했다.

이틀 뒤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처음 뵈게 된 77세의 어르신은 강마른 모습과 말투에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다. 한때 베트남의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동지들의 숭한 죽음을 체험했을 그는 끝까지 죽음 앞에 구걸하려 하지 않는 용맹한 군인 같았다. 연명의료계획서에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치 있게 존재하길 원한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들이 호스피스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걸고 싶어요.”는 마지막 산책 일지 모른다. “기저귀 말고 화장실로 가면 안돼요?”는 지키고 싶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일 것이다. **월 **일 **시 그는 그가 원했던 대로 가족들에 둘러싸여 가정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고 현충원에 안장되어 끝까지 그 품위를 지켰다.

○ 수기(종사자) 부문

- 최우수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짜증은 없었다.> (박병남 씨) 수기 중 일부

언제 일어날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엄마의 마지막은 아무런 말도 못 한 채 억지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엄마보다 긴 시간을 연명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누워만 있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이기도 했다.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상담사가 되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후 방문하신다. 참 신기한 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짜증이 없다.

한날한시에 휴가를 내고 상담을 오신 가족들이 있었다. 상담 중에 가족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살아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구순이 넘으신 아버지의 편안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선택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섯 명의 가족들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즐겁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상담은 종료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이렇게 유쾌할 수 있다니.....